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1:1. 로마서는 고대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들로 구성된 "서한들"이라고 불리는 신약전서의 한 부분에서 첫 번째 책이다. (15~20분) 로마서의 특징을 읽는다.

저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의 첫 번째 절에서 자신을 저자로 소개하였다.

대상.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다.

역사적 배경. 바울은 서기 57년경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적었다. 그는 자신의 임박한 로마 여행과 관련하여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냈다.(더 자세한 배경 설명은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로마서에 대한 주해 참조, 319~320쪽)

특징. 로마서는 바울의 서한 가운데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씌어졌으며, 또한 아마도 신약전서에서 가장 교리적인 책일 것이다.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원으로 지적하고 있다. 로마서는 또한 율법적인 형식주의에 우선하여 영에 따라 걷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로마서에 대한 주해 참조, 320쪽)

주제. 바울은 자신의 방문에 대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적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보편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사도로서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였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바울은 가르쳤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제를 펼쳐나가면서 바울은 죄와 의로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의의 행함, 의롭다 하심을 얻음, 택함과 같은 교리에 대해 말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적으면서 스스로 이 편지의 주제를 요약하였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로마서 1:16~17)

신약전서 목록(목차)을 살펴본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서'라고 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사도 바울의 서한(편지)이다. 모두 14통의 편지가 신약 전서의 약 30% 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각 책 이름의 저자들이 쓴 서한이다.

로마서가 신약전서에 나오는 첫 번째 서한이지만,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한은 아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두 말씀을 읽는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순종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법을 요약하고 있다. 로마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담의 타락과 그 타락이 가져 온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니게 되는 새 생명이다. 그것은 또 의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믿음과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해 말해 준다. 로마서에는 가장 명백한 성서적 가르침들이 열거되어 있다. 즉,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과 선민의 자격,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구원이 올

수 없는 이유, 이방인도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유와 구원을 받는 방법 등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영광스러운 교리의 주된 출처이며 그 기이한 원리를 따라 사람들은 해의 왕국의 결혼과 영원한 가족적 유대를 통해서 가장 높은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을 수 있다. ...

"로마서는 그 자체의 성격상 이질적인 해석을 유도할 수도 있는 서한이다. 로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리는 먼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 교리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교리의 적재적소에 대입시킨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임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 기독교계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교리를 신봉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데 대한 바울의 견해를 오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마틴 루터로 하여금 카톨릭을 타도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이 구절이었으며, 이 구절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업은 이 지상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브르스 알 맥콩키, 신약 교리 주해서, 2:212-13)

로마서 1:7-8, 바울의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임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인가? 로마의 이방인들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가? 오늘날 각 종파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세상이 이 편지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귀중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회원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으며, 그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고 거듭난 자들이었다. 그들은 또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자들이었다. 그 편지는 이미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편지의 원 수신인으로서 동일한 배경과 지식, 그리고 같은 체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었다. 로마서는 일반 종파에게는 봉한 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개봉된 책이다."(브르스 알 맥콩키, 신약 교리 주해서, 2:216)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리는 다음과 같다. 아래 각 항의 경전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씩을 찾아 읽어본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로마서 1:16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26:27~28, 33 참조)
-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성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의 충만한 결과를 겪게 하신다. (로마서 1:21~32 참조; 또한 모사이야서 2:36~37; 교리와 성약 1:33 참조)
-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으로,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와 복음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따라 각 사람에게 보상을 주신다. (로마서 2:1~16 참조; 또한 누가복음 12:47~48; 교리와 성약 82:3 참조)
- 의에는 단지 의롭다는 고백만이 아닌 의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로마서 2:21~29 참조; 또한 로마서 10:1~4; 니파이후서 31:5 참조)
- 어떤 사람도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곧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을 뿐이다. (로마서 3:9~26 참조; 또한 엘마서 22:14; 모로나이서 6:4 참조)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1~3장 (성구 익히기, 로마서 1:16)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준다. (30~35분)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인간이 배가 고파야만 비로소 음식을 갈구하듯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교리’와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그리고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Conference Report, 1987년 4월, 106쪽;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95쪽)

• 사람들이 그리스도 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구주에 관한 우리의 느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 세상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타락하였으며 또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세상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물문경이 어떻게 이 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물문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기 위하여, **앨마서 34:9를 찾아 읽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타락의 교리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우려 하였다. **로마서 1장 14~17절을 읽는다.**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성경(조셉 스미스역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7절이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로마서 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16~17)

• 바울은 복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 왜 그가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며, 또 이 권능(또는 은혜)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가르쳤다. (**로마서 3:24~31을 읽는다.**)

다음 질문의 답을 생각하며 참조 성구를 찾아본다.

•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주는 왜 필요한가? (바울은 모든 이들이 행함으로 심판 받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였다. **로마서 2:1~16 참조; 또한 니파이전서 17:35 참조**)

•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구주는 필요한가? (바울은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누구도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이는 율법으로 정죄 받는다. **로마서 2:16~3:23 참조**)

• 오늘날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단지 교회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경전은 그러한 생각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마태복음 7:21 참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말씀을 읽는다.

“교회의 사명은 회원들이 승영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원리와 프로그램과 신권을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개인이든 교회 전체로나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이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 프로그램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족 활동을 지원해야지 결코 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성도의 빛, 1978년 10월 호, 157쪽)

• ‘교회 프로그램’과 ‘가족활동 및 복음실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 바로 위 질문의 답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왜 그것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아래에 간단히 적어본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1:18~32.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성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의 총명한 결과를 겪게 하신다. (25~30분)

다음 표준새번역 성경 로마서 1장 18-32 을 읽는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표준새번역 성경 로마서 1장 18-32)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모든 창문에 두터운 커튼을 치고 불을 모두 끈 채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본다. 이때 불이 들어온다.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위 읽은 경전 구절 참조)

•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 죄는 우리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 영이 없는 상태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22~23 참조)

• 왜 일부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10:21 참조)

다음 성구들을 찾아 읽고 아래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니파이후서 26:10~11; 모사이아서 2:36~37; 교리와 성약 1:31~35.

로마서 1장 24, 26, 28절을 읽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냥 놓아 두신 것을 묘사하는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 적어본다.

영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스러운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요한복음 15:10; 교리와 성약 95:12 참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개역개정판 로마서 1장 21~32절**을 펼쳐 놓고 각 구절을 대조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본다.

• 어떤 죄가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경전에 표현된 단어를 아래에 10가지 정도 나열해 본다.

• 이러한 죄들은 얼마나 심각한가? (32절 참조)

• 이러한 죄들이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22, 24, 25, 26, 27, 28절 참조)

• 로마서 1장에 묘사되어 있는 죄에 반대되는 의로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래에 다섯 가지 정도만 적어본다.

•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왜 주님의 영을 우리 생활에 더 풍성하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본다.

경전은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과 빛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적는다.

로마서 4~5장.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45~50분)

여러분이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근처 언덕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줄 유리잔에 담긴 얼음물이 있다.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1) 물이 여러분을 구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 2) 물을 얻기 위해 언덕을 기어오르는 여러분의 노력, 또는 3) 잔 속의 물을 마시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여 줄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 이러한 상황은 영적인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가? (힌트: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라)

• 물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7:37 참조**)

• 물을 향해 언덕을 오르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영적인 구원의 과정에서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물에는 우리의 생명을 구할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이 우리를 구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언덕을 오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언덕을 올라야만 한다. 그리고 물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을 마셔야만 한다. 같은 조건이 복음에서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다. 그러나 그분의 속죄가 우리 생활에서 충분한 영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또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만 한다.

우리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죄와 죽음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로마서 5장 12~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왜 구주가 모든 인류를 위해 필요하였는가? (**12절 참조**)

• 아담의 타락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12, 14절 참조**)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가? (**로마서 3:23 참조**)

로마서 5장 15~20절을 읽으면서 '사망',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 본다. 죄와 사망이 어떻게 정복될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5장 21절**을 읽는다. 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다음 성구 몇 가지를 읽어 본다. **니파이전서 10:6; 니파이후서 9:21; 엘마서 12:22; 이더서 12:27; 교리와 성약 20:19~25.**

물이 우리를 구하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물을 찾도록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우리가 속죄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준다.

로마서 4장 1~3절을 읽는다. 왜 바울이 신앙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도록 인도하였던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생각해 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범적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를 간단히 적어보라.)

로마서 4장 17~25절을 읽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과 행함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를 찾아본다.

•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이같은 자세한 내용을 왜 여기에 기록하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야고보서 2:14~18, 니파이후서 25:23,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로마서 4:16을 읽고 '신앙'과 '선행' 사이의 균형에 대해 생각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던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신앙은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특성이 다 중요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실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성품, 속죄를 믿는 신앙 ... 그의 아버지와 구원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오직 그러한 신앙 만이 '복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순종 곧 꾸준하고 또 오래 참는 순종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심 [1994년], 2쪽)

신앙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이다.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을 바라는 데 필요한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으며, 물을 향하여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없다. 앞의 비유에서 물은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도움을 상징하고 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처럼 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제공한다.

우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아니며 또한 '선행'도 아니다. '신앙과 행함'이 구원에 이르는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며, 또 그를 통하여 온다. (**모사이사서 3:17; 엘마서 38:9; 모세서 6:52 참조**)

로마서 5장 1~11절을 읽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찾아본다.

• 이 구절의 바울의 표현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깊은 인상을 여러분에게 주었는가?

• 속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구주를 사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비록 전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을 동의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을 부르고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6장.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매장,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구주를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으면서 우리 죄의 상징적인 사망과 매장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나타내는 것이다. (35~40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을 때 했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는 동안 과거보다 더 좋은 상태로, 더 높은 상태로 가야겠다는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은 인생에서 ‘불쌍하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와 거의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쌍한 느낌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불쌍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모든 이들이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장 절망을 느꼈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그들 자신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무엇인가 더 좋고 또 더 높은 것을 가져야겠다는, 한 차원 높은 생각을 가졌던 때를 기억할 수가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성약[대학생 연령의 청년들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 1996년 9월 6일])

아이어링 장로가 묘사한 것과 같은 절망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였던 때를 생각해 본다. 소망을 찾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음 성구를 읽고 또 그 구절이 주는 위안과 소망을 찾아 적어본다. 이사야 40:30~31; 모사이야서 4:6~7; 모로나이서 10:32~33.

• 어떤 이의 권능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바울이 편지를 적어 보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있었으며, 또 속죄가 모세의 율법을 이루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로마서 6장 8~23절을 읽고 바울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의 결과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가르쳤던 내용을 찾아 본다.

아이어링 회장이 계속해서 한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한 차원 높은 것을 느끼도록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높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높이 일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우리 힘만으로는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주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맺을 수 있는 성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약과 더불어 그분께서는 의식을 마련하여 주셨는데, 그 의식을 통해 그분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성약하신 것을 그분께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성약한 것을 우리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성약, 1쪽)

우리가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속죄의 권능을 받게 된다.

로마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 초기의 의식과 성약을 찾아보면서 **3~7절**을 읽는다.

침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와 우리의 죄에 찬 본성을 “물속에 묻겠다는” 성약을 맺는 의식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뺄” 권능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리와 성약 128:12~13 참조**)

• 침례가 우리의 죄를 “묻거나” 또는 “버리겠다”고 성약을 맺는 의식이라면, 우리가 침수로써 침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어떤 사건들을 상징하고 있는가? (**3-5절 참조**)

• 우리가 죄에 찬 자신을 버리고 침례를 받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더욱 좋아질 것인가?

• **교리와 성약 20편 68~69절과 모사이야서 18장 8~10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침례시에 맺는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침례 성약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상징하지만 침례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침례는 우리가 깨끗하고 되고 또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의식이며,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도록 준비를 하는 의식이다. 우리가 실제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신이 갖고 있는 깨끗하게 하는 권능을 통해서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죄는 침례의 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성신을 받을 때 용서된다. 육에 속한 성질을 없애주고 또 우리를 의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우리가 실제로 성신과 함께 하고 또 그와 동반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그 후에야 죄와 찌꺼기, 그리고 악한 것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서 태워져 없어지게 된다.” (브루스 알 맥콩키, 신앙개조의 새로운 증인, 290쪽; 니파이후서 31:17; 모로나이서 6:4; 8:25~26 참조)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7장: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또한 복음의 율법으로 대치되었다. (10~15분)

여러분이 지키도록 부모님이 정한 가족 규칙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노트에 적고 나서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누가 이 규칙들을 만들었는가?
- 여러분은 그것들을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는가?
- 청소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않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은 어떤 것들인가?
- 이 규칙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축복이 되는가?

나이가 들에 따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세우신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전통과 규율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였던 비유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7장 1~6절을 읽는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칠 때 요점을 잘 나타내 주는 비유를 생각해 내는 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로마서 7:1~6] 그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절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충절에 비유하였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아내는 그에게 속해 있으며, 그의 법에 순종해야만 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간음한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남편은 더 이상 아내의 행동을 지시할 수가 없으며, 그 아내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 예속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과 율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였다. 율법이 살아 있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하다면, 이스라엘은 율법과 결혼한 것이었으며, 또 그 규칙에 순종할 필요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추종하였거나 다른 종교를 따랐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율법은 성취되었으며,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이, 곧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였으며, 그분의 복음 율법에 이제 순종을 해야만 하였다”(브루스 알 맥콩키, 신약 교리 주해서, 2:253~254)

모사이야서 13장 27~30절과 엘마서 34장 9~13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한다.

-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가?
- 바울의 시대에 일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매달려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바울의 시대에 어떤 사건이 모세의 율법을 성취시켰는가?

로마서 7장 7~2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으며 또 복음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의 많은 국면들을 대치하였다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였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는 로마서 7장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며 이 원리를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

(조셉 스미스 역 로마서 7:7-2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도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었나니라. 이는 전에는 범법이 없이 내가 살았으나,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르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또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제정된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르렀는데 이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나는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도록 정죄함을 아는도다. 이는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을 부인하고 나를 속이더니, 그에 의해 내가 죽임을 당하였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임을 아는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나타나 나를 죽게 만들려 함이니,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우리는 계명이 영적인 줄 아노라. 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이니라.

“그러나 이제 나는 영적이니 이는 내가 행하라 명 받은 바를 행하며 또 허락되지 아니하도록 명 받은 바를 나는 허락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내가 알기에 옳지 않은 것을 나는 행하려 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것은 내가 미워함이니라. 그러할진대 만일 내가 허락하려 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 함에 동의하는 것이니 나는 정죄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하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도리어 나는 내 안에 거하는 그 죄를 굴복시키려 하는도다.

“무릇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며, 무릇 의지는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라. 무릇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행하였을 선은 선하지 않음을 내가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에서 행하고자 아니한 악은 내가 선함을 알게 되었나니 이를 나는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 율법 아래에서 행하고자 아니한 것을 행하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더이상 내가 잘못 행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안에 거하는 죄를 굴복시키기를 구하노라. 그리하여 율법 아래에서 내가 안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율법을 보나니 곧 그리스도의 계명이라, 이는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도다.

“그러나 내 지체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만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죄의 법을 섬길진대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조셉 스미스 역 로마서 7:7-27)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8장. 속죄는 죄를 지으려 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35~40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중요한 물건, 성격이나 특성, 은사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다음 질문에 대답한다.

- 어떤 것을 여러분은 가장 상속받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어떤 성품과 특성을 물려받기를 소망하는가?

다음 말씀을 읽는다.

“후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영의 자녀와 육으로 난 독생자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우선권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당연한 상속자이다. 아버지의 뜻에 엄격하게 따르는 것, 복음과 그 의식에 대한 순종 및 무한하신 속죄를 행함으로써 은혜에 은혜를 입어 진보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셨으며 또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복음의 의식에 순종하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자발적인 순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영원의 세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리, 권능, 지혜, 영광, 그리고 승영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상속자”, 몰몬 백과사전, 2:583)

교리와 성약 84편 33~40절을 읽고 그 가운데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서 약속된 것을 찾아본다. 상속의 교리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8장 15~19절을 읽는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생각한다.

-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상속에 대한 우리의 잠재력에 관하여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 17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 18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그것에 따르는 요구 조건들과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공동 상속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람들처럼 권능과 영광과 영원한 권능의 보좌를 상속받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3쪽)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동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상속자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상속자들과 동등하게 상속받는 사람이다. 각 공동 상속자는 동등하게 그리고 전체에서 나눌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한 사람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함께 상속 받는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우주가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면, 공동 상속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속하게 된다.” (브루스 알 맥콩키, 몰몬 교리, 395쪽)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그분이 지니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음 성구를 살펴본다. 갈라디아서 3:26~29; 4:1~7; 교리와 성약 50:26~28; 88:107.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생각한다.

-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러한 상속을 받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가 어떻게 이 상속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아버지의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구주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생각한다.

-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우리 각자와 그분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우리 각자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기회를 그분께서는 왜 마련하셨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할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 생활에 오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 찬송가 가사를 읽는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에게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으며 또 그분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